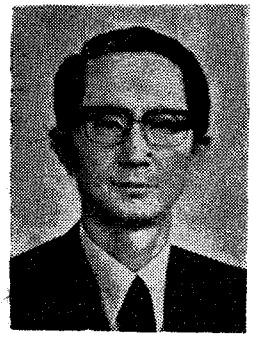
國家間 特許技術移行에 관한 小考

— 先後進國間의 技術貿易을 中心으로 —



李 丙 昊
<辯護士·辨理士>

① 技術貿易의 意義

技術貿易(Trade Techniques)이라 함은 「一國의 企業과 外國企業間에 技術提供契約을 締結하여 相對側 企業으로부터 提供技術에 대한 代價(報酬)로서 一定의 技術料를 取得하는 去來」를 뜻한다.

商品貿易이 「상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對象으로 하는 去來인데 反하여 기술무역은 「기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이른바 無形貿易(Invisible Trade)의 一種인 것이다. 오늘날 國際貿易의 中心은 生產物 즉 상품의 賣買去來로 되어있으나 重化學工業의 發展과 더불어 技術革新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술의 國際的去來도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代의 經濟成長理論은 기술은 勞動이나 資本과 더불어 생산의 重要因이라는 認識이 提高됨으로써 이러한 기술무역은 國際間의 生產要素去來의 하나로서 크게 利用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이 技術貿易去來의 대상이 되고 있는 技術內容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工業所有權의 讓渡

이것은 自己(또는 自社)가 가지고 있는 工業所有權(Industrial Property)을 他人(또는 外國人)에 有償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공업소유권에는 우리가 잘 아는 特許權(Patent), 實用新案權(Utility Model), 意匠權(Design), 商標(Trade Mark)의 4種이 있다.

이러한 權利는 모두가 獨占排他的權利로서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同技術을 利用하여 物件을 製造販賣할 수 있으며 타인이 이러한 權利者의 許諾下에 讓渡 또는 貸與받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여 製造하거나 販賣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업소유권은 政府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認定되는 것이다. 기술무역에는 이와 같은 공업소유권을 외국의 상대측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工業所有權의 實施와 許與

두번째는 공업소유권의 所有가 상대측에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소유권을 자기가 所持하면서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업소유권의 實施許與」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使用權의 設定」이라고도 한다.

以上의 공업소유권의 양도, 공업소유권의 실시허여의 利益을 提供하기 위하여 거래의 當事者間에 締結하는 契約을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이라고 하며 그 제공에 대한 대가를 라이센스料(License Fee)라고 한다.

3. 노우하우의 提供

세번째로 노우하우(Know How)의 제공을 들 수 있다. 노우하우는 一般的으로 「기술의 秘訣」 또는 「實際的인 技術知識」이라는 意味로 通用되고 있으며 ICC(國際商業會議所)의 定義에 따르면 「産業上의 有用한 기술을 完成하여 실시하는데 必要한 秘密의 技術的인 지식, 經驗 또는 이들의 集積」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이 노우하우는 特許를 받을 수 있음에도 어떤 理由로 특허를 받지않는 發明으로서 그 내용은 一般에게 公開하지 않은 특허보다 技術範圍가 넓어 발명에 이르는 낮은 部分까지 勿含되고 있다.

노우하우의 제공은 具體的으로는 ① 製品製造用의 設計圖面이나 指導書, 靑寫眞등의 제공, ② 新工場建設의 經營을 위한 計劃의 제공 내지 檢討, ③ 신공장을 設置하는 機械設備등에 관한 助言, ④ 技術者의 派遣 또는 招請에 따른 技術指導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우하우의 제공은 이른바 노우하우계약(Know-How Agreement)에 따라 그 대가인 노우하우료(Know-How Fee)를 받게된다.

4. 工業所有權과 노우하우提供의 結合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공업소유권의 實施許諾의 어떤것이던 노우하우 제공이 結合되고 있다. 즉 現在와 같이 기술혁신이 顯著한 時代에서는 實際的問題로서 單純히 공업소유권의 양도 및 대여만으로서 高度의 기술을 마스타하여 제조하는 것은 困難한 것이며 이에 따른 노우하우의 제공이 극히 普遍化되어 있다. 이경우 技術提供은 라이센스계약과 노우하우계약을 結合한 것이 된다.

이들 各種의 技術提供契約은 우리나라에서는 外資導入法에서 技術導入에 대한 條項을 挿入하고 있으며 日本은 外資法으로 一括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술무역은 技術援助, 技術提携, 技術協力등으로 불리어지며 그 大體的인 要點은 기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有償去來이며 一船的으로 先進國으로부터 開途國에 대한 廣義의 技術援助 또는 技術協力이며 이에 따라 기술무역은 技術輸出(Export of Techniques)의 兩面으로 成立되고 있다.

② 技術貿易의 推移

지난 60年代이후 國家나 企業間에 기술이 상품의 거래와 같이 그 流通되는 量과 그 額數가 增加하고 있다. 그 양이 상품의 去來水準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 伸張率은 놀라운 정도로 빠르다.

이른바 기술무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거래는 주로 先進工業國사이에서 活潑히 進行되고 있으며 開途國에서는 기술수출은 거의 없이 기술도입에만 偏重하고 있지만 대체로 그 양이나 件數, 金額에서 모두 增加趨勢를 보여주고 있다.

世界에서 현재 技術貿易收支面에서 黑字를 보고있는 국가(共産圈除外)는 美國, 英國, 프랑스이며 이 가운데 미국은 1976年度에 기술수출에 의한 受取額을 無慮 4,285百萬弗이나 되어 技術輸入에 대한 技術貿易收支率은 9.54로서 10倍의 出超를 나타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기술무역수지가 거의 均衡을 이루고 있으며 1976년의 기술수출액은 영국이 465백만불, 프랑스가 1,332백만불로서 기술무역수지율은 各各 1.05와 1.14가 되는 若干의 기술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西獨과 日本은 기술수입액이 기술수출액을 훨씬 上廻하는 技術貿易赤字狀態를 示顯하고 있는데 지난 76년의 技術輸出額은 西獨이 308백만불 일본이 173백만불로써 기술무역수지율은 각각 0.37과 0.20밖에 되지 않는 기술수입초과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76년에 기술수출이 173백만불에 기술수입이 846백만불로서 기술수입이 수출의 5배에 달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

우와 對照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60년에 기술무역수지율이 0.02라는 극히 低調한 狀態에 있던 것이 每年 東南亞, 南美 등에 기술수출을 伸張시킴으로써 15년동안에 無慮 10배의 개선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들 工業國과는 기술무역액을 比較할 수 없을만큼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즉 기술수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기술도입액은 1976년에 約 3千萬弗, 1977년에 4,210만불로서 일본의 거의 30분의 1에(1976年基準)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마다 기술도입의 增加趨勢에 따라 지난 62년 이후 特許關聯技術이 200件, 노우하우가 524건, 商標權이 47건으로 特許關聯技術導入比重이 1975년 이후 크게 늘어나는 趨勢에 있고 특히 重化學工業製品의 生產 및 輸出主導政策의 指向으로 機械電子分野의 특허관련기술이 지난 74년의 26%에서 76년에는 62%로 急激히 높은 비중을 占하고 있다.

③ 技術貿易과 國際經濟

1. 擴大되는 先進國間의 技術交流

오늘날 通信衛星과 宇宙航空의 劃期的인 發展에 따라 各國의 經濟는 漸次 相互 嚴密한 關聯과 紐帶를 이루어 가고 있다. 상품의 교역이 增大하고 擴大됨에 따라 기술교류도 활발해져 미국, EEC諸國, 일본, 캐나다 등 先進國間에는 相互經濟協力과 기술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經濟成長과 工業發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先進自由諸國間에 있어서의 기술협력은 ① UN의 經濟社會理事會(ECOSOC), ② UN의 專門機構인 國際聯合敎育科學方文機關(UNESCO), ③ 國際原子力機構(IAEA), ④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科學政策委員會, 科學技術委員會, 研究協力委員會, ⑤ 國際技術聯合會議, 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등의 國際機構에 의하여 研究協力의 形式으로 促進되고 있다.

이에 注目할 것은 오늘날 東西 兩陣營의 解氷과 和解무드에서 先進自由諸國과 蘇聯 및 東歐圈 諸國과의 貿易擴大와 더불어 政治體制가 相異한 兩地域間에 경제협력과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例로써 ① 日蘇科學技術交流協定, ② 西歐諸國으로부터 蘇聯, 東歐에의 플랜트輸出에 따른 技術協力, ③ 소련국내에서의 프랑스 루노社 및 이탈리아 피아트社의 蘇聯政府와 合併에 의한 自動車生產과 그 기술협력, ④ 英國플라스틱聯盟과 체코商業會議所와 締結한 기술협력협정, ⑤ 소련의 일본에 대한 自動車工業, 音響機器工業, 電子機器工業이나 시베리아資源開發에 관한 기술 및 資本協力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兩陣營의 기술교류는 그 발전과 전망은 自由先進諸國間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크지는 못하며 특히 自由先進國의 클럽的 性格을 띠고 있는 國際機關인 OECD는 加盟 各國의 經濟協力의 重要한 一環으로서 加盟國 企業間에서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술협력은 有償의 기술무역과 상품수출에 따른 After Service形態의 無償技術提供의 2種이 있다. OECD가 특별히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加盟國間에 있어서 기술무역 거래의 自由化와 여기에 密接不可分의 관계를 갖는 資本去來의 自由化에 있다하겠다.

기술도입과 자본거래에 관한 制限이 없었던 것은 미국과 캐나다이며 유럽(諸國)은 OECD規約이 制定되기까지는 많은 制限을 加해 왔다. 일본도 1964년에 OECD에 加盟하여 처음에는 기술수입에 있어 契約期間이 1年超過에 그 代價支拂이 件當 3萬弗이 넘는 기술거래는 自由化義務免除를 留保하다가 諸外國으로부터의 强力한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先進國間의 기술교류에 關聯하여 最近 크게 論議되고 있는 것은 技術隔差問題이다. 영국의 「유럽技術共同體構想」, 이탈리아의 「기술마샬플

랜」案등은 선진국사이의 技術隔差에서 오는 것으로서 미국은 宇宙航空産業, 原子力産業, 電子工業등에서 그리고 유럽은 産業技術, 純粹科學에서 相互技術上의 격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一般的 傾向은 美國企業들이 先端的 技術의 제공을 하지 않는 관계상 유럽제국이나 일본등에서 入手하기 困難한 點이 많아 EEC는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情報産業, 電氣通信, 金屬工業, 公害, 運送등 新技術의 企業化計劃을 推進中에 있고 政府에서도 企業集中을 위한 稅法改正등 環境改善에 努力하고 있다.

2. 開途國에 대한 技術協力

世界 150個國 가운데 경제가 고도로 開發된 高所得의 선진국은 20餘個國이며 남어지는 이와반대로 低所得에 머무르고 있으나 工業化를 통한 所得水準 向上을 위해 經濟開發을 적극추진하는 개발도상국이 많아졌다.

선진국의 경제는 높은 소득에서 貯蓄을 形成하고 이것을 再投資하여 生産力을 확대시켜 높은 소득을 誘發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開途國은 낮은 소득으로 저축 및 投資가 順調롭지 못한데다 급격한 人口增加, 食糧不足, 技術開發의 鈍化, 國際收支의 慣性的 赤字등으로 선진국과의 經濟的 隔差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經濟的 技術的隔差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 開途國에 어떠한 협력을 해야하는지의 南北問題들을 解決하려는 유엔貿易開發會議(UNCTAD)가 4년에 한번씩 開催되고 있으며 同會議에서는 개발도상국측으로부터 선진국에 대한 자본 및 기술협력등 많은 具體的인 政策上의 要求가 있었고 선진국도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노력을 추진하도록 約束한 바 있다.

그러나 開途國이 경제개발을 遂行함에 있어 最大의 隘路는 자본과 기술의 不足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資金供給에서 오는 生産力 增强의 자본협력과 이것으로 공장을 設計, 建設 및 經營에 도움이 되는 生産技術을 習得시키는 特許 및 노우하우등을 포함한 기술협력이 切實한 실정에 있다.

기술협력에는 2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첫째는 國際機關이나 先進國 政府의 기술협력이다. UN에는 通常技術援助計劃(RPTA), 擴大技術援助計劃(EPTA), 國聯特別基金(UNSF)의 3가지 계획이 있고 또한 아세아生産性機構나 콜롬보계획등의 地域的인 機構를 통해서 선진국 개발 도상국에의 기술협력을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선진국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기업에 대한 民間技術協力으로서 이 민간기술협력은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으로부터 資本供與에 隨伴되는 先進企業의 海外投資 및 相互間의 海外合作投資를 말한다.

기술협력의 내용은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그 使用權의 設定이나 노우하우의 제공 및 이들의 結合形態인 有償의 기술수출과 상품 특히 重機械플란트의 수출에 따른 제품, 경영 기술의 공여나 技術者의 訓練, 敎育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無償의 技術援助로 나누어진다.

民間技術協力은 개발도상국의 工業開發에 크나큰 役割을 함과 아울러 當該國 企業에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相對先進國企業에 대해서도 상품수출 특히 重機械, 플란트 및 그 部品, 原料의 輸出擴大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상의 기술협력은 技術料를 收益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술협력은 개발도상국에 出資할 수 있는 인센티브(Incentive)가 되어 선진국기업은 開途國內의 事業經營에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이와같이 기술무역을 포함한 民間海外投資는 선진국기업과 개도국기업과의 共存共榮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협력과 기술협력은 開途國에 대한 義務임과 동시에 중요한 使命으로서 이것은 앞으로에 있어서도 世界全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이며 先後進國間의 기술격차를 줄이는데 寄與하게 될것이다. ♣